

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. 이제 각자가 살아야 할 땅을 분배해야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. 중요한 지역에 “도피성”을 만들라는 것이다(6개의 도피성) **도피성이 뭐냐?**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과 함께 한 이방인들 중에 고의적인 의도가 아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나 혹시 실수나 사고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다면 도피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라는 것이다.

누군가가 원수를 갚으려고 죽이려고 할 것이니 거기서 도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주라는 것이다.

**뭘 의미하는 것일까?** 도피성이 곧 모든 부끄러운 자들이 용서받고 치유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다.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죄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라고 했다.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심판에서 빠져 나오게 한 복음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.

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살다가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.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지어놓고 그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내다 보면서 그때 살 길을 준비해주신 것과 같다. 그것이 복음이다. 그래서 복음은 영원 전에 준비 되었고,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영원 전에 준비되었다는 것이다(롬16:25-26, 엡1:3-5).

**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?**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랑, 은혜,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살고, 일어나 가서 나 같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것이다( **절대 목표요. 천명, 소명, 사명이라고 한다**)

1. 이 도피성 안에 세가지 축복이 담겨 있다.

1)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, 모든 저주, 심판, 재앙에서 빠져 나오는 비밀이다. 갈보리의 축복이다(행1:1)

① **이거 체험해보라는 것은 그런 시간에 진짜 믿으라는 것이다.** 이것이 잘 안 된다.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, 아닌 척하거나, 반대로 죄의식에 눌려서 포기해 버린다. 갈보리 축복이 각인이 안 되어 그렇다.

② **아플 때, 실패했을 때, 바로 “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구나”, 붙잡으라는 것이다.**

거기서 그 분만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“오직”이 나오는 것이다. 다른 것 의지하고, 바라볼 것이 없는 것이다.

2) 이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깨닫게 된다. 그것이 감람산의 축복이다(행1:3)

① **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준 것이다.**

세상 나라에서는 그들이 비난을 받고, 설 자리가 없다.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산다. 이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. 세상 나라에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.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. 이 사단을 깨는 권세가 하나님 나라다.

② **아담 이후에 이 사단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.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.** 이들을 살려 내가 사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게 만들라는 것이다. 그 미션을 붙잡고 공부하고, 일하고, 사업하는데, 그것이 유일성이 되는 것이다. 그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,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,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.

3) **이런 삶은 내 의지, 힘으로 체험 할 수 없다.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라는 것이다.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다(행1:8)**

실패한 제자들이 열흘을 집중하며 약속의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했다. 체질이 바뀌고,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.

① **뭐가 재창조인가? 내가 바뀐 것이다.** 두려워하고, 거짓말하고, 도망가던 그들이 바뀐 것이다. 사람을 보고, 문제를 보고,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면서 15개국 문, 3천 제자, 참된 지교회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.

② **문제가 있는가? 어려운가? 그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, 내가 바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라**

이번 단기선교를 위한 40일 아침 금식기도는 기회다. 하나님 사람은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한다고 했다(시32:6)

2. 이제 우리는 세가지 도피성을 준비해야 한다.

1) 나 자신을 위한 도피성이다.

① **우리는 언제든지 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. 예상치 못한 사고도 나고, 질병도 오고, 환난도 올 수 있다.**

그런 시간이 올 때 내가 정말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. 내 안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.

이런 그리스도께 영접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있다(재난을 위한 방공호처럼)

② **언제든지 그 분께 피할 수 있는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(그것이 24시, 25시, 영원이다)**

피할 방공호가 있어도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다. 훈련할 때는 쓸데 없을 것 같다.

어느날 문제가 터지면 기도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. 요셉이 17세 이전에 그 훈련을 받은 것이다(언약을 각인 시키고, 기도 속에서 체험한 것).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가고, 노예로, 감옥에 가서도 임마누엘을 누린 것이다.

다윗도 마찬가지다. 평소에 준비했기에 문제가 올 때 “오직 저만 나의 피난처”라는 고백이 가능했다(시62편)

2) **교회 안에 있어야 할 도피성이다.**

① **성도 중에 누가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복음 깨달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.**

어느날 나도 넘어질 수 있고,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.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(가족, 병원, 군대)

② **누구라도 교회에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, 치유받고,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.**

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. 교회가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고 한다. 들어오는 것도 쉽고, 나가는 것도 쉽고,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것도 쉬워야 한다. 원래 집, 병원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다.

사람들이 나를 통해서,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.

(흑인이요, 언청이요, 귀머리 큰 흑까지 난 예일대학교 교육학 박사인 Dan Bartlett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)

3) **세상에 준비해야 할 도피성이다.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다.**

① **내가 있는 학교에서, 직장에서, 지역에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지도록 기도하라.** 내 현장에서는 전도부터 하지 말고, 좋은 관계부터 맺으라.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함께 하고,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면 어느날 절대적 역사가 일어난다(뉴욕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경영자)

② **세상에는 단 한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. 가서 조금만 말해주고, 도와주고 와도 열매가 난다(겨자씨)**

이번에 가는 캄보디아도 인구 90%가 불교 국가다. 프랑스, 일본의 식민지였고,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700만 명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고 고통을 당했다. 유명한 영화 “킬링 필드”의 현장이다.

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 오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 나오는 도피성이 되는 것이다.

**결론**-캄보디아 선교에 우리 교회에서 6명이 동참한다. 성령이 함께 가시고,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다녀 오겠다. 나의 도피성, 교회의 도피성, 세상의 도피성을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축원한다.